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행사)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 산동대학 문예미학연구중심
연례 국제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지난 10월 25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에서 산동대학 문예미학연구중심과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사업단이 “생태미학과 동양철학”(生态美学与东亚哲学)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2007년부터 시작된 두 대간 간의 연례학술대회로서, 올해로 12년차를 맞이하는 정례 행사이다. 매년 성균관대와 산동대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성균관대에서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에선 성균관대에서 6명, 산동대에서 6명, 모두 12명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논문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이 끝난 다음 학술회의 마지막 순서로서 학생 우수논문 선정(2인) 및 시상이 있었다.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 소속의 고희림 박사생과, 산동대 문예미학연구중심 소속의 周思钊(주사조) 박사생이 각각 「朝鲜时代山水画里的“静坐”研究」과 「论生态美学关键词“绿色”」라는 논문으로, 각 학교 1명에게만 주어지는 우수논문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논문 선정과 시상은 2017년 산동대에서 열린 연례 대회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학생들의 연구활동 고취와 격려를 위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학술대회의 개최 장소는 산동대이며, 개최시기는 2019년 10월로 예정되었다. 이후 학술대회는 발표에 참여하는 박사과정생의 국적과 인원을 확대하여, 신진연구자들의 활발한 국제교류와 공동연구를 도모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25일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

고혜림 수상사진



周思钊 수상사진

